

Strengthened in the faith and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信心坚固, 感谢的心也更增长了。

# 감사를 드리자



## 11월 20일(주) 성례주일

주일 1,2,3,4부 예배 : 성찬예식

오후예배 : 학습, 유아세례, 입교 및 세례식과 성찬식을 베푸는 성례예배

## 11월 24일(목) 추수감사절 감사의 밤

1부 : 만찬 오후 6시 / 장소: 체육관, 친교실, 영어예배: 양순관

2부 : 감사예배: 오후 7시 30분 / 만찬 후 본당

## 11월 27일(주) 추수감사주일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퀸즈장로교회

# 아가페 agape

월간 아가페 제393호 · 2016년 11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4347 Fax : 718) 358-7789



## 2016. 11

말씀의 갈급함을 시원하게 **성경파노라마**

**노방전도** 준비된 성도를 맞게 하신 하나님

**행복에의 초대/반갑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경배와 찬양/내 몸을 드립니다**

다민족 선교와 우리 부서  
새로운 리더의 비전

# 눈으로 쓴 책

눈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잠수복과 나비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입니다.  
저자는 프랑스의 “장 도미니크 보비 (Jean-Dominique Bauby)” 입니다.

저자는 43세 때인 1995년 12월 8일 갑자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3주 후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로크드 인 신드롬 (locked-in syndrome) 이란 진단을 받습니다.  
로크드 인 신드롬은 의식은 있지만 온 몸은 잠금 장치에 잠긴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병입니다.  
장 도미니크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왼쪽 눈이었습니다.

클로드 망디빌 이라는 사람이 알파벳을 하나씩 읽으면 장 도미니크가 원하는 글자에 왼쪽 눈을 깜박입니다.  
그렇게 15개월 동안 왼쪽 눈 20만 번 이상을 깜박이며 완성된 책이 “잠수복과 나비” 입니다.

그의 현실은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으나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니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이 출간 된지 8일 후 그에게 심장마비가 찾아왔고, 그는 그가 꿈꾸던 나비처럼 날아갔습니다.

그가 눈으로 썼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런 신음입니다.”

그는 그의 사랑스런 아들이 가까이 있었지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고 그를 꼭 안아주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을 그의 책에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침을 삼킬 수 있다면, 숨을 쉴 수 있다면, 아이들을 안아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눈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글을 쓸 수 있다면 크게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담임목사 김성국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 W·E·L·C·O·M·E

## 2016년 9월 새가족 안내

# 예수님과의 행복한 만남

### Korean Ministry

최지혜 1-Y-2 청년선교부	김박건 2-Y-2 청년선교부	조명숙 1-F9-5 마르다	전철·전무승 2-F13-3 디모데, 유년부	이수호 1-Y-2 청년대학부	송병철 2-Y-1 청년대학부	유옥화 2F7-4 다비다	홍준익 4WS-4 디모데	김수지 4WS-4 에스터
백종우 2F10-3 아글라	백제이 2F10-3 초등부	김은정 2-F6-2 청년선교부	김은주 3-LN1-2 마르다	배성로 3-FM2-1 디모데	송현림 3-FM2-1 에스터	옥혜영 3-FM3-2 다비다	박연옥·김미나 3-F11-3 마리아, 유년부	함순자·김가희 2-F16-3 뵤뵤, 유치부
						<h3>Russian Ministry</h3>		
김명섭·김재훈 3-FW-1 디모데, 영아부	공현선·김하울·하림 4-F5-1 뵤뵤, 유치부, 영아부	유다빈 1-Y-1 청년대학부	조월미 2-F12-3 뵤뵤	이진호 4-Y-2 디모데	박은원 4-Y-2 에스터			
<h3>Chinese Ministry</h3>								

### Chinese Ministry

郭樑	邱锦武	代莉莉	李蕊	李慧琴	林泉胜	苗园翎	付凤文	常晓铮
隋立坤	王文燕	王卫君	田艳迪	曾跃	崔文华	何湘婷	吴迪	张立
张军	张华	杨小怡	苏珊	陈崇彬	陈如振	陈俊杰	陈享	陈调

■ 새가족안내회 안내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A Book Written With An Eye

There is a book written with nothing but a single eye entitled,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The author is a French writer by the name of, Jean-Dominique Bauby.

On December 8th, 1995, the author suffered from a massive stroke. After regaining consciousness three weeks later, he was diagnosed with something known as, locked-in syndrome.

Locked syndrome, is a condition in which a patient is conscious, and aware of what is happening, but they are unable to move. It is as though their entire body is being locked up by something. The only part of Jean-Dominique Bauby’s body that he could still move was his left 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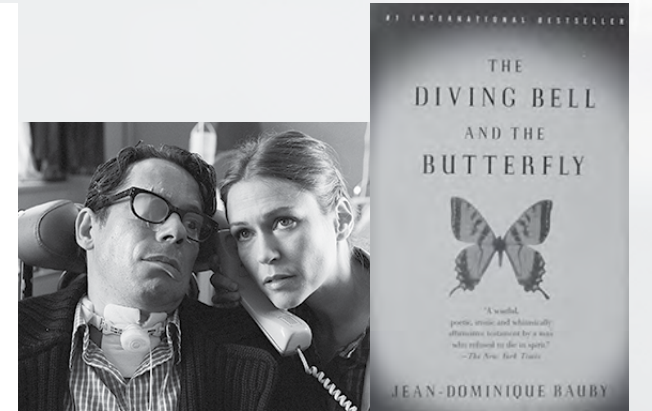
A person by the name of Claude Mendibil, helped Bauby to write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Mendibil would slowly recite the alphabet over and over again, while Bauby would blink once the correct letter was spoken by Mendibil. Through this painstakingly slow process,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was written.

While the reality of his situation left him unable to do anything, Bauby would speak of a dream he had, of one day flying free like a butterfly. 8 days after the publication of his book, Bauby had his wish granted, as he suffered from a sudden and fatal heart attack.

Using just his eye Bauby wrote, “If you can just swallow drool dropping down out of your mouth, then you are the happiest person. If you can just breath in and out you are blessed. Complaints and blame is sighing of those who are insensitive to their blissfulness.”

Bauby wrote of the frustration that he felt from having a son whom he dearly loved, and yet being unable to stroke his son’s head, or to even give him a hug.

Friends, if we find ourselves capable of writing, hugging, swallowing, or even just breathing then we ought to be filled with gratitude and give much thanks.



## 用眼睛写下的书

有一本书是用眼睛写成的。

书的题目是“潜水钟与蝴蝶”(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作者是法国人,尚-多米尼克.鲍比(Jean-Dominique Bauby)

作者在他43岁的那年·1995年12月8日突然昏倒并陷入昏迷状态。

虽然他在3个星期后恢复了神志·但被诊断为闭锁症候群(Locked-in syndrome)。

闭锁症候群是一种·虽有神志但全身就像被锁住一样一动不能动的疾病。

尚-多米尼克仅剩下左眼能够眨动。

有一位叫克劳德·蒙蒂比的人·当他按顺序唸出字母的时候·多米尼克就眨左眼选择他所需要的字母·就这样·在15个月当中·依靠20万次以上眨左眼而写成的书就是这本“潜水钟与蝴蝶”。

他的现实就像穿了潜水服一样·无法做任何的事情,但他却有像蝴蝶一样呼哧呼哧飞走的梦想,就在这本书出刊后的第8天,他突然得了心脏麻痹,因此他的梦想便像蝴蝶一样离他而去。

他用眼睛写了“只要能咽下流出来的口水的人是幸福的,只要能吸气,呼气的人也是有福的人,抱怨和埋怨是陶醉在幸福的人的奢侈的呻吟”。

虽然他身边有可爱的儿子,但是他抚摸不了他的头,也不能仅仅地拥抱儿子。这种遗憾也便叙述在这本书上。

如果可以咽下口水,可以深呼吸,可以拥有一下孩子,不是用眼睛,而是可以用手写字的人,就应懂得加倍的感恩。

# Книга написанная глазами.

Есть такая книга, которая написана глазами. Название этой книги “Скафандр и бабочка”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Автор этой книги Боби, Жан-Доминик (Jean-Dominique Bauby)”

В 43 года, 8 декабря 1995 года, он пережил инсульт и впал в кому. Через 3 недели он пришел в себя, но врачи поставили неутешительный диагноз “бодрствующая кома” (locked-in syndrome). Эта болезнь при которой, без посторонней помощи человек не может шевелиться, есть, говорить и даже просто дышать. В застывшем теле остался жить только один левый глаз.

Его ассистентка Клод Манабиль, читала весь алфавит и на нужной букве, автор моргал. 15 месяцев, моргая левым глазом свыше 200 тысяч раз, он написал книгу “Скафандр и бабочка”.

Его реальность была в том, что он был заключен в своем теле, как в скафандре. Но его душа имела надежду, как бабочка свободно летающая. Через 8 дней после выпуска книги, его сердце остановилось и он улетел, как бабочка о которой мечтал.

Он писал глазами. “Если бы я только мог проглотить свои слюни, я был бы самым счастливым в это мире. Если бы я только сделать вдох и выдох своими силами, я был бы самым счастливым в этом мире. Жалобы и стоны для счастливых людей, сытый голодного не разумеет”.

В своей книге он сожалеет о том, что рядом с ним любимый сын, но он не может погладить его по голове.

Проглотить свои слюни, дышать, обнять своего любимого сына, писать не глазом а рукой, если ты сейчас можешь все это делать, то благодаришь ли за это.

## 월간 아가페 제393호 목차

- 2 신앙시론 · 눈으로 쓴 책 | 김성국 목사
- 5 9·10월 담임목사 설교요약
- 8 113기 새가족학교 졸업식
  - 하나님께 감사, 섬김이 있는 권장에 감사 | 장기복 권사
  - 교육 잘 받아 교인으로 잘 정착하기 | 박은혜 권사
- 10 은혜 충만했던 단기선교 현장
  - 하나님께 귀한 소중한 만남 | 송지수
  - 큰 축복의 시간 in 케냐 | Jinny Kim
  - 산간지역의 소중한 경험 | Helen Yi
  - 망친 티셔츠의 은혜 | 박민아
  - 감사모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 차동미 권사
  -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며 | 류기정
- 14 성경파노라마 · 신구약 성경이 한 눈에
- 16 노방전도 ·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일! 선교 | 김나영 집사
- 18 가을특별성회
- 20 화보 · 행복에의 초대 · Coming Home
- 22 행복에의 초대 · 아버지 마음으로 길에 서니 | 유준 집사
- 23 행복에의 초대 · Coming Home 1,2,3
- 24 성전건축을 위한 바자회 | 편집부
- 26 추수감사절 만찬에 초대합니다 | 계화자 전도사
- 27 하나님께 힘써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 오인수 목사
- 28 교육부 ·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도록 | 차평화 전도사
- 30 2016 QPEM Fall Retreat
- 32 중국어예배부 · 感谢赞美神 | 何秀萍 Shirley·Candy Zheng
- 34 러시아어예배부 · 마음에 기적이 일어난 바자회 | 송요한 목사
- 36 부서소개 · 경배와 찬양 | 심인보 집사
- 37 온 맘으로 주를 찬양 | 조지영 집사
- 38 30대 선교회 · 찬양을 통한 은혜와 기쁨으로 | 이민진 교우

## 9월4일 열왕기하 7:3-10

###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교향곡과 같이 나병환자에 대한 성경 본문 구성도 4단계(악장)로 구성되어 있다.

#### 1악장: 절망 (왕하 7:3-4a)

이들의 첫 악장은 주어진 단어와 같이 나병, 죽기를, 굶주림 등 절망과 죽음뿐인 상태였다.

#### 2악장: 구원 (왕하 7:4b-7)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 아람 군대에 가서 마지막 수단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여 그들의 자비에 따라 굶주림이라도 해결할 것을 결정하고 해질 무렵 진영 끝에 이르러 살피니 이미 주님의 역사하신 병거와 말소리 등 큰 군대소리로 군대 스스로 두려워 흩어져 도망케 하신 빈 진영에서 나병환자들은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 인생에게도 1악장 절망으로의 마감인 아닌, 2악장 구원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3악장: 축복 (왕하 7:8)

절망에서의 구원과 더불어 제 3악장에서는 나병환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풍성한 축복까지 받게 된다. 예수님은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민6:23-26)과 물질(신 28:2-6)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부요케 하심을 깨닫게 하려 오셨다(요 10:10b).

#### 4악장: 사명 (왕하 7:9-10)

구원과 축복 가운데 있던 나병환자들은 사명을 깨달았다.

#### 나병환자들의 사명선언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구원과 축복의 특별한 특혜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빛을 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천민상층(특혜를 받아 상층에 있으나 책임은 안지는 천민과 같은 자-송 복 교수)이 되어선 안 된다. 굶주린 왕궁과 같은 뉴욕과 우리 가정 안에 영적인 절망으로

## 9,10월 담임목사 설교요약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10월 23일 Coming Home(집으로) 행복에의 초대를 외치자.

1악장 절망, 2악장 구원, 3악장 축복, 4악장 사명의 인생 교향곡을 완성하고 주님께 가자.

## 9월11일 다니엘 7:15-28

### 거룩한 백성 영원한 나라

공포, 재난, 죽음, 불의의 현시대를 사는 자로 영원한 구원과 폐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사 51:6) 눈을 열어(왕하 6:15-17) 절망, 불가능, 불의, 죽음의 세상 속에서 소망, 가능, 공의, 생명의 세계를 보아야 한다.

다니엘이 벨사살왕 원년에 꿈속에서 본 네 짐승이 큰 바다에서 올라와 싸우는 혼란함과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해석한다. 큰 세력이 일어나 성도들을 괴롭히는 고통 가운데서도 성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7:18)을 말하고 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고 이미 성도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보아야,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도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제한된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다.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의 삶, 의로운 삶이란 ?

#### 1. 깨끗한 작품으로 사는 삶 (사 60:21)

하나님의 의로운 창조물로 영원한 나라의 작품답게 맑고 깨끗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 2. 용서하고 의지하는 삶 (눅 23:42-47)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베푸신 용서와 사랑이 의로움이며 이를 닦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 3. 불의를 거부하고 기다리는 삶 (눅 23:50,51/잠 4:18,19)

아리마대 사람 공회의원 요셉과 같은 불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9월18일 / 다니엘 8:1-14

### 매일 드리는 제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음을 알게 된다.

#### 1. 힘으로 사는 인생

##### 1) 자랑 한다 (단 8:3)

일생을 자기의 뿔을 키우는데 공을 들이며 긴 뿔과 힘을 자랑하나 본문에 이 뿔들이 다 꺾이는 것을 본다.

##### 2) 바쁘고 사납다 (단 8:5-7)

현저한 뿔을 가진 숫염소가 땅에 밟이 단지 앓을 정도로 바쁘고 사나우(헬라 제국)나 결국에 망하는 나라(알렐산더의 등극으로)가 된다.

##### 3) 대적한다 (단 8:8-12)

큰 뿔이 꺾이고(알렉산더의 죽음) 네 뿔로 나뉘는 역사가 예언된 것으로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싸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교회를 대적한다.

#### 2. 예배로 사는 인생

##### 1) 매일 예배를 드린다(단 8:12b)

매일 예배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민 28:1-4)으로 매일의 삶에서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지 못하므로 매일, 처음 시간, 좋은 시간을 예배로 드려야 한다.

##### 2) 진리를 버리지 않는다(단 8:12b)

예배 가운데 진리가, 예수님이 잊혀진(요 14:6), 프로그램 위주의 예배가 되어선 안 된다.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마 2:1-2, 2:10-11).

##### 3) 예배가 허물어졌다면 다시 회복 되어야 한다(단 8:13-14)

허물어진 예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행 15:16). 마지막 때의 특징은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요 4:23b). 예배로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며 힘이 있다.

9월25일 / 다니엘 8:15-27

### 후에 될 일

본문 다니엘이 본 환상의 해석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성도의 바른 삶을 살펴보자.

#### 1. 항복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말할 때 보고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항복하였다(단 8:15-18)

성경 전체의 종말론적인 말씀 앞에 항복한 것이다. 말씀은 고개를 끄덕이는 좋은 강연이나 나의 생각을 주고받아 선택하는 토론의 내용이 아니다.

말씀을 받을 때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항복하며 받아야 행복한 것이다.

#### 2. 속지말라 (단 8:23)

마지막 때에 특징인 속이는 것(마 24:23) 특히 적그리스도(단 8:23)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약 1:16-17).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만이 진짜 그리스도이시며 소망이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에서부터 옴을 바라 보아야한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교회의 승리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속아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 3. 간직하라

현재를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종말에 대한 환상을 늘 간직하고 살라는 것이다(단 8:26).

천사가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며(단 8:18-19)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한다.

종말의 삶은 오늘,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다(벧전 4:7-10).

10월2일 / 다니엘 9:1-19

###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된다.

#### 1. 결심하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말씀을 깨닫고도 어려운 현실과 희망의 약속 가운데 기도하기로 결심하였다(단 9:1-3). 기도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며 결심 할 때에 응답하신다(단 10:12). 결심의 기도는 습관을 만들고 그것이 삶이 된다(눅 9:51). 기도의 폭과 시간을 넓힐 결심을 하자.

#### 2. 자복하라

기도의 내용에 자복(회개, 용서를 구함)이 있어야 한다(단 9:4-6). 다니엘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과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듣지 않은 것을 자복하고 있다(단 9:5-6). 말씀을 떠나고 선지자를 무시하였을 때에 주의 큰 재앙(단 9:12a)이 있음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단 9:9, 16a)구하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은 분노를 거두어 가신다.

#### 3. 담대하라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단 9:15, 17, 19).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뻔뻔한 기도나 건방진 태도가 아닌 담대한 기도를 드린 것이다.

다니엘의 기도는 한 없이 겸손하지만 아주 담대한 기도로 그의 근거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단 11:32b).

10월9일 / 다니엘 9:20-27

###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사자 굴에서도 용감했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의외로 자신감 없는 우울함이 나타난다(단 8:27, 10:8, 10:17).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에게 낙심하지 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

본문을 통해 다니엘이 받은 은총의 표시를 밝혀 나의 은총 받은 표시는 무엇일까 살펴보자.

#### 1.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단 9:20-21)

다니엘은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저녁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은총 받은 강력한 표적으로(히 4:16)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예배를 통해 위로 받고 힘 얻어 절망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 2.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모든 것이 은혜이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 함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 (단 9:22) Living Bible 에는 and said to me, “Daniel, I am here to help you understand God’s plans.” 하나님께서 돕는 것이 은혜이다. 일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를 따라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표시이며 우리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임을 잊지 말자.

#### 3. 용서받고 의를 얻는다(단 9:24-26)

모두 483년이 지나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등장하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의를 주심을 다니엘은 알았다. 십자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지 은혜는 없다고 생각하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용서를 받으심에 고난의 모든 아픔을 당하면서 인간의 고통,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은혜가 있다. 십자가는 죄 용서 받고 영원한 의를 얻는 다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은총을 입은 자는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이다.

주후 2016년 9월 18일 주일 저녁 예배  
제 113기 새가족 학교 수료예배



## 하나님께 감사, 섬김이 있는 권장에 감사

장기복 권사 (113기 새가족교육 수료자)

할렐루야!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처음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면서 다 아는 사실을 왜 반복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매번 참석하면서 이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왜 믿으세요 하고 질문하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는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6주 교육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의 생애에 관하여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요점이며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근본 된 예수님을 모르고 다니는 교회생활은 종교 생활이란 것에 국한 될 수 밖에 없어요. 저도 몇 십 년을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허송세월을 하였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신 분이며 내 속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부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용광로에 비유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용광로의 뜨거움

보다 더 뜨거웠을 거라 생각하니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며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그 아픔 무서움을 견디시고 이기시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저 감사 감사가 입으로 흘러 나왔습니다. 그 피가 나를 영생으로 옮기신 그 사랑, 그 생명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값없이 받은 사랑을 무엇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순간 생각하며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걸음 한 걸음 따라야 겠다고 다짐하며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저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라는 말은 정말 아름다운 단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한 것 같이 퀸즈장로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진정한 신부로 깨어 준비하며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멋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권세를 누리며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늘 안 보이는 곳에서 매 교육 때마다 봉사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맞아 주시고 돌아갈 때까지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 교육 잘 받아 교인으로 잘 정착하기

박은혜 권사 (2교구 제 113기 새가족 수료자)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퀸즈장로교회에 오게 된 동기는 집에서 가까운 새벽예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성함도 얼굴도 뵈지 못한 가운데 5월 9일 처음 예배를 왔는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으로 빠져들었고 내일은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주신 메시지를 남편과 나누며 기도제목도 정하고 즐겁게 3주 동안 새벽예배와 2주 주일예배를 드린 후 마음을 정하고 등록했습니다.

일곱 번의 새가족 교육을 매주 화요일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6월 7일 첫 새가족 교육을 받던 날 나의 기도수첩에 “교육 잘 받아 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교인으로 잘 정착되기” 라고 다짐하며 기록하고 화요일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새벽예배를 드리고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남편 역시 힘들 텐데도 “오늘 저녁에 교회가 야지” 라며 화요 새가족 교육을 기다렸습니다.

교회 연혁과 교회 내 이곳저곳의 설명 가운데 ‘양순관’ 이

이양순 권사님의 헌신으로 건축되어짐과 권장의 오늘이 있기 까지 성도들의 헌신과 원로목사님의 뉴저지에서 부터의 개척 스토리 등을 들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권장 교인으로서 저는 후보에 나온 모든 사역자들의 이름을 기도수첩에 적고 그날부터 매일 기도하는 것으로 처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라는 표어 아래 비전과 열정으로 세워질 “다민족 교회” 건축에도 저희 부부는 힘껏 동참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갈망하던,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지, 왜 오직 예수 이어야 하는지, 왜 후대를 복음 안에서 키워야 하며,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를 매번 일깨워주시는 담임목사님의 강한 메시지는 제 영혼의 시원한 생수가 되어 갈증을 해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교회에는 기쁨을, 교우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주님 닮아가는 삶을 권장 교인으로 함께 살아 갈 것을 다짐하면서 입구에서부터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전도사님과 권사님들, 새가족 위원들과 매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신 선교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은혜충만했던 단기선교 현장

On August 30th, the G2G members went to the Harlem mission. At Harlem, they would sing along to the chorus. This showed me how important God was to them. The people at Harlem, didn't have much but they had God and that's all they needed. And they knew that.

I'm thankful that i went on this mission because I was able to see how strong the love of God is. It wasn't the mission where you would pack your things and ride an airplane to another continent. It was mission where you would ride the church van and come back on the same day. But it was still important. It had the same purpose. To teach more about God. A mission isn't about how far you go but about helping others have a connection with God.



## 하나님께 귀한 소중한 만남 송지수

When I got home that night, I talked to my dad about how I felt when I got there and what I saw. We planned on going on a mission together. It might be big or it might be small but it doesn't matter.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was able to make this possible such as, Kim Sung Kuk M, Cha Hyun Ju Q, and the mission members. The g2g members and I will give glory to God. Thank you!

在八月三十号·g2g 成员去了哈林宣教。在哈林·他们会与诗班一同歌唱。这让我知道神对他们是多么的重要。在哈林的人们拥有的并不多·但他们有神·而神也是他们唯一需要的。他们也知道这点。我很感谢这次我能去这个短宣·因为我看到了神的爱是可以有多么的强烈。我g2g 成员的同伴去哈林教导其他人关于神。这不是一个你打包行李登上飞机去到另一片土地的宣教。这是一个乘着教会的小巴又在同一天返回的宣教·但它很重要。它有着同样的目的·就是教导神的道。宣教不是属于你去的有多远·而是要帮助人与神建立关系。当我当天晚上回到家时·我告诉我爸爸去那里的感受和所看到的。我们计划了一同去宣教。它可大可小·但都无所谓。我要感谢所有让它实现的人·如 Kim Sung Kuk M, Cha Hyun Ju Q, 和宣教成员。g2g 成员和我将荣耀归给神。谢谢大家！



8월 30일 할렘선교에 G2G도 함께 다녀왔어요. 특송을 부를 때 그분들도 함께 부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분들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소유했고,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만이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이번 선교는 짐을 싸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장소로 가는 선교가 아니라, 교회 밴을 타고 당일치기 다녀올 수 있는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교는 얼마나 멀리 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빠와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선교 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큰 선교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김성국 담임 목사님과 채현주 권사님, G2G 멤버를 비롯해 이 선교를 가능하게 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케냐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케냐의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헌신한 하루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도 확신케 해 주셨습니다.

나이로비와 나록과 올로로피에 이르기까지의 선교 활동과 뉴욕에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작은 한 아이가 다가오더니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눈을 보고는 "God Bless You" 라고 말했고 이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하러 케냐에 간 것이었는데, 도리어 축복을 받은 우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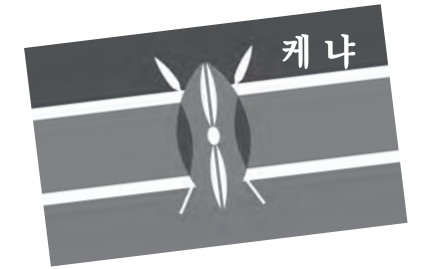
케냐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 안에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웠고, 주님께 가장 영광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케냐에서의 시간을 돌이켜 볼 때, 비록 하나님 나라에 부족할지라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드립니다.

To love and be loved as He as loved us; twas the mindset I had to repeatedly say in my head as I prepared myself for Kenya missions.

Throughout the span of the two weeks, each and every day that we had dedicated to serving the Lord was not in vain; the children reciprocated the love that we showed them and that love was used to bring Him glory. From Nairobi to Narok to Olorropil, it was only through God's grace. A constant reminiscence of the moment in which a little girl came up to me, hugged me real tight, looked me in the eyes, and said, "God Bless You" repeats in my head. We had gone to Kenya to bless these children with the word of God only to find ourselves amongst reciprocated blessings.

Our time in Kenya was truly a blessing; it taught me what it means to grow in faith, what it means to love as He has loved us, and what it means to act in accordance of bringing Him glory above all else. I look back at my time in Kenya and I find that though I am imperfect in His kingdom, I have been renewed in the spirit of my mind.

## 큰 축복의 시간 in 케냐 Jinny Kim



以主爱我们那样的去爱与被爱；因此我在预备去肯尼亚做短宣的时候·在我的脑海里不断的提醒自己。因为再也没有任何事是更重要得可让人能够不去将神的爱传递给我们接触到的肯尼亚的孩子们。在这两周的时间里·我们将每一天都委身于主里并不是徒然的；孩子们回报了我们向他们表达的爱而这份爱是用来归荣耀与神。从内罗毕到纳罗克到厄罗柔珀·都是因着神的恩典我们才能毫无损伤的回到纽约来回忆在肯尼亚短宣的时光和为我们的使命成功而高兴。有一个深刻的回忆是一个女孩到我跟前来将我紧紧地抱着·看着我·说·“神祝福你”·一直在我的脑海里回荡。我们去肯尼亚以神的话祝福这些孩子们·到头来发现我们得到祝福为回报。

我们在肯尼亚的时光真是一个祝福；它教会我什么是在信心里成长·什么是去以主爱我们的心去爱人·和什么是以行动带出神的荣耀是比任何事都还要重要的。我回顾我在肯尼亚的时光·我看到即使我在神的国度里是一个不完全的人·但我的灵更新了。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단기선교팀 짱이(Helen)입니다.

오늘 단기선교팀 선교보고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기선교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전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첫날, 저희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팀원 중 한명인 John집사님께서 가방을 도둑 맞았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다같이 합심하여 잃어버린 가방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하셨고 그날 이른 새벽,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가방을 찾아주었습니다. 잃어버린 가방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번은 저희가 지역교회로 탐방갔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7-8시간 차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겨우 도착한 지역교회는, 생활수준이 매우 낮아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산에서 버섯을 따서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마음에 기쁨을 품고 매일 하나님을 즐겁게 경외하였습니다. 이 산간 지역으로 복음을 갖고온 선교사님들은 전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몸소 몸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어렵게 복음을 이곳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 주민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잃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과, 또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大家好·我是中国短宣队的一员·我叫江怡(Helen)·很高兴神能够预备我去到这次的短宣·在当中每个经历都是很宝贵的·神的恩典一直与我们同在·从一开始我们到达目的地时·我们的队员John执事的随身背包就被人给偷了·当时传道带我们同心为到这个丢失的背包祷告时·当晚半夜三更·有人就真的将背包给送回来了·感谢神·神让我们经历了他实在是又真又活的神·还有就是当我们去往农村教会探访时的经历·我们一路在车上颠簸了7·8个小时来到农村·当地的生活水平是艰苦的·大家都是以耕种以及上山采菌为生的·在那儿的弟兄姐妹每天日出而作·日落而息·但他们依然每天知足常乐·怀着喜乐的心敬拜神·将福音带入这些农村地方的牧者们都是徒步跋山涉水的将福音身体力行的传给在农村里的村民·在他们身上我实在是看到了神的怜悯心肠·不愿一人沉沦乃愿万人得救·不畏艰难·肯付代价来做主工·



Helen Yi

## 산간지역의 소중한 경험



박민아

## 망친 티셔츠의 은혜

呼唤我们的是谁?为了什么?忠诚与谁?带着这些问题·开始了柬埔寨的短宣事工·

天国·罪·上帝·耶稣基督·有信心的传福音是带着能力的·为了解福音·矮小的身躯·骑着自行车·后面还带着弟弟妹妹来到了教会·宽的路·窄的路·从四方聚集了来了很多人·这情景·就好像是召唤我们这些罪人的耶稣基督一样·

其中有一个叫凯亚那的小孩·小孩子的父亲都在台湾打工·自己独自一个人生活在简陋的房子里·并且是去教会聚会的·当背诵出9节经文后·获得了一辆自行车为奖励后·喜悦过后·忍了很久的眼泪倾倒而出·无法出声的哭泣·只能让泪水在心里流淌着·问我是否可以一起在教会生活·我只能强忍着泪水说下次一定再来·我们下次再见·因为要离别了·

这个孩子的哭泣就好像是柬埔寨的哭泣一样·有悲伤在里面·在没有办法得到保护的孩子们生活的柬埔寨·福音是唯一的希望·宣教士们的服侍·用福音将柬埔寨的泪水抹去·让我看到了神的异象·

对于明年宣教日程和与那个孩子的再次相见的约定虽然还不确定·但是我相信·只要是爱柬埔寨的人·并且知道神的计划和异象的人·藉着祷告并将一切都交给给神·

온두라스 Santa Barbara에서의 VBS 사역 중에 아이들이 직접 티셔츠를 그릴 때였습니다.

어떤 남자 아이가 티셔츠를 망쳐서 창가에서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티셔츠 오른쪽엔 Jesús te ama (Jesus loves you) 라고 써져 있었지만, 그 옆에는 잘못 그린 듯 커다란 X자와 노란 선들이 막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 “VBS 활동 때문에 마음 상한 영혼이 없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던 저는 즉시 그 아이 대신 그려주었습니다. X자를 칼로, 노란색 얼룩을 십자가 방패로요. 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울었던 아이가 제 옆에서 웃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이는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계속 인사를 했고 자기 티셔츠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아이의 망친 티셔츠처럼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부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아이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며 더욱 더 복음을 자랑하며 전하겠습니다

在洪都拉斯SANTA BARBARA的VBS事工中·有一个与小朋友们一起制作T-恤衫的经历·有一个小男孩·在窗户那哭泣·在小男孩坐过的位子上·放着一件做坏掉的T-恤衫·T-恤衫右边写着“耶稣爱你”旁边还写着一个X字母和一些黄颜色乱画的线条·几个小朋友看到后就开始嘲笑他·

在去宣教之前·就一直祷告·希望不要在做VBS的事工中·不要有任何灵魂受到伤害的人·那一刻·我马上坐到小男孩坐过的地方·开始替他修改弄坏掉的图案·做完之后·抬头一看·那个哭过的小男孩坐到我身边·脸上充满了笑容·嘴里一直重复着·谢谢你·真的谢谢你·那些嘲笑过他的孩子们开始向他投出了羡慕的目光·通过这件事让我明白·我们就好像那被毁坏的T-恤衫一样·被耶稣基督赋予了重生的希望后·并且修改我们的生命·感谢赞美主·我也相信我们都是上帝的名作·通过洪都拉斯宣教·让我更加明白了神的话语;“我的恩典够你用的·因为我的能力是在人的软弱上显得完全”(林后12:9)再一次感谢赞美主!



## 감사모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차동미 권사

우리를 누가 부르셨나?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 다시 대답하며 캄보디아선교팀의 현지에서의 첫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천국, 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을 전하는 복음은 실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길을 알고자 작은 키의 아이들이 어린 자전거를 타고 뒤에는 동생들까지 태워서 퐁퐁대며 교회로 왔습니다. 큰 길, 작고 좁은 길, 논두렁 길을 따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죄인인 자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손짓을 따라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 캐이나라는 아이는 부모가 타이완에 노동자로 가 버려서 홀로 남아, 벗짚 지붕 밑 벽도 아무 가릴 것 없는 평상 위에서 생활하면서 교회로 오던 아이였습니다. 9구절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자전거 선물을 받고 기뻐하다가 이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으로 울면서 교회에서 지낼 수 없냐고 물었지만, ‘다시 올게 곧 다시 보자’ 라고만 대답하고 그 아이의 가슴의 울림만 안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은 곧 캄보디아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을 안고 있고, 우상의 그늘에 있고, 어린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 캄보디아 땅에 복음만이 소망임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섬기며 복음으로 캄보디아 땅의 눈물을 닦으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킬 날이 내년 단기선교 때 일지는 모르지만 “감사모”(장봉석 장로님께서 지어주신 ‘감보디아를 사랑하는 사람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며

류기정

저희 인도 단기 선교팀은 “Hope for Kids” 라는 VBS 사역을 했습니다.

고아원 마당에 커다란 천막을 치고 강렬한 햇빛을 피해 진행된 VBS 프로그램 기간 동안, 열심히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그 무더운 날씨에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소년들까지 4시간 씩 땅바닥에 앉아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갈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만난 아이들은 극심한 가난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는 아이들에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란 소망이 있었습니다. 참 소망을 품은 이 아이들이 인도 땅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我们印度短宣队这一行，与50-60名的小朋友还有青少年们一起完成了“Hope for Kids”事工。在孤儿院的院子里，在炽热的烈日下，搭起棚子，在作VBS侍侍的日子里，热心参与，精读圣经，孩子们渴望的眼神至今难忘。成年人都难以忍受的炙热天气，从4岁的小朋友开始，连续4个小时坐在地上，却依然热情饱满的学习神的话语。让我感受到来自他们心灵深处对神的无限渴望，很是感动。

崇拜的时间很长，有一位小朋友开始出现睡意，坐在他旁边的小伙伴伸手去唤醒他去继续听讲道的样子，真的是非常的可爱。让我反问自己的心，是否也有如此渴慕神话语的心呢？是否渴慕中又有真正的喜乐呢？是否每天真正的感激神的话语呢？这眼前的一切看见，让我开始了悔改。

在印度相遇的小朋友们，虽然生活艰苦，但是也让我看到了希望，就是来自那属天的希望。大声的告白耶稣基督就是救主，唯有爱耶稣，跟随耶稣的孩子们可以得到永生，而这份永生是世界上任何东西都无法比拟的。祷告这些怀揣希望的孩子们，在印度这片土地上，能成为敬拜者。感谢神让我和他们成为一家人，并且属于同一个天父，将一切感谢和赞美归给我们的父！

긴 여름날의 타오르는 태양 아래 젊음과 낭만을 노래하던 사랑의 이야기가 어느덧 추억이 되어 사라져가고 서늘한 바람 따라 철새들도 집을 찾아 먼 길을 떠나며, 점점 높아져가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날과 자신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갑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들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단련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고 기쁜 그릇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지기를 갈망함은 성도의 기본도리입니다. 2016년 초부터 시작한 전교인 성경 1000독 읽기 운동의 연결로 성경 천독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해 10월9일 주일 오후예배에 장년성경공부가 시작되었으며 이번 교육과정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성국 담임 목사님의 강의는 성경 목록가를 다 함께 부르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와 인물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구약 전체의 파노라마를 한 단어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을 영어로 CASKET EMPTY라고 하는데 CASKET EMPTY의 단어를 펼쳐 놓으면 바로 성경이 파노라마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 성경 파노라마

# 신구약 성경이 한 눈에

### 구약은 **CASKET**

Creation : 창조 시대

Abraham : 아브라함(족장)시대/주전 2100-1450년

Sinai : 시내산(모세, 율법)시대-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주전 1450-1050년

Kings : 왕정 시대/주전 1050-586년

Exile : 포로 시대/주전586-539년

Temple: 성전 시대/주전 539-430년

### 중간시대 및 신약은 **EMPTY**

Expectations : 기다림(말라기-마태복음 사이)/주전 430-6년

Messiah : 메시아(공관복음)/주전 6-주후 33년

Pentecost : 오순절(사도행전)/주후 33-65년

Teaching : 가르침(서신서)-구원 받은 자의 삶/주후 33-95년

Yet-to-Come : 다시 오심(요한계시록)/주후 95년-재림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단번에 파노라마로 보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보배롭고 아름다운 파노라마를 하나씩 살펴보고 음미하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가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회복시켜 주셨는지,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들어온 죄악과 사망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성육신과 온전한 삶, 고난과 희생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과 진리를 자세히 배우고 음미할 생각에 가슴이 설칩니다.

하늘과 땅의 온갖 값진 보물이 가득 숨겨져 있고,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이 복된 구원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기대해봅니다.

#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일! 전도

김나영 집사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2016년 퀸즈장로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동안 전도에 대한 우리 교회의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10월 23일 행복예의 초대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교회를, 그리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도할 대상자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각 선교회별로, 부서별로 노방전도를 나간다 하여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10월 9일 주일 오후예배를 마치고 30대 선교회를 중심으로 156가 한아름 앞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씨였지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어린시절 즐겨 부르던 익숙한 찬양을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예전의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오고 가는 많은 행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고 우리 교회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레이스 선교무용단의 찬양에 맞춘 부채춤 공연으로 더욱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음향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담임목사님께서서는 확성기를 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뉴욕의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슬픈 자, 괴로운 자, 억눌린 자,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 오기를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마음을 확실히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이 지난 후에 간단하게라도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과 몇명과 함께 기도한 후 우리는 어디로 가서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한국사람들, 중국사람들, 또 다른 민족들이 많이 사는 동네의 중국 마켓 앞으로 갔습니다. 적은 인원이 가는 것이라 조금 떨리기도 했지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고맙다고 받는 미국인 아저씨, 수고한다면서 과자를 몇 개 쥐어 주고 가시는 한국 아주머니, 저 멀리서부터 고개를 절레 흔들시면서 거부하시는 중국인 할아버지 등, 복음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 외국인 아주머니는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하시기에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전도지를 받아가시며 한번 읽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고 추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 역시 우리교회가 행복예의 초대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노방전도하는 우리 교인들을 보셨고 퀸즈장로교회같은 대형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전도하는 것에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목사님의 말씀이 짧지만 강렬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한번도 노방전도를 해 본적이 없는데 당신의 교회에 가서 우리도 전도하자고 말씀드려야겠다면서 전도지를 받아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쳤던 복음은 잃어버린 영혼들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의 많은 교회에게도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이번 행복예의초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 받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퀸즈장로교회 성도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 축복의 세가지 기도 포인트

지난 10월 28일(금)과 10월 29일(토)에 뉴저지초대교회 한규삼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를 가졌다. 특별히, 29(토)일 어린이 전도 집회와 30(주일)일의 장로투표를 앞두고,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시어 첫날 '바울의기도'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 첫째날 (10/28) 금요일 저녁 “바울의 기도” (빌 1:9-11)

바울서신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으며 서신을 시작할 때 늘 감사의 기도를 했다. 본문에서도 “기도했노라” 라고 시작하고 있다. 바울은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어떠한 기도로 계속 사귀어 가졌을까?

바울의 3가지 기도 포인트를 배워 우리들도 서로 축복해 주어 큰 역사를 이루자.

### 1.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서로 축복하여 줄 때)

풍성해짐은 천국의 속성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그 풍성함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하다는 뜻

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고갈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욕구 (desire)를 새롭게 (refresh) 하여 영원히 넉넉함을 갖게 된다.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지식과 총명이다.

**지식** :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이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여기는 “오직 예수” 의 삶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의 삶이다.

**총명** : 상황에 적합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면 총명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기 위해 지식과 총명을 구하라.

### 2.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에 적용)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시대이다. 따라서,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해 분별함이 필요하다. 이 시대는 ‘진실’ 로 이 세상에 승부해야 한다. 하나님은 진실하며 허물없이 끝까지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시대가 보고 싶어 하는 신앙이다. 진실함만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오래갈 수 있다. 지극히 선한 것에 자기 삶이 드러져야 한다. 특별히, 자녀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 3.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라

‘의’ 는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준이다. 로마서 (3장)에서 칭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 나라에 들어올 ‘의’ 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는가?

우리 스스로 가진 의로는 불가능함으로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허락된 것이 ‘복음’ 이다.

곧,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며 “화목제물” 되심이며 이것은 필요에 의한 사용권이 아니라 연합됨의 연합권이다.

예수님의 의를 나눠 쓸 수 있음은 부부와 같은 관계로 그 결과가 곧 의의 열매이다.

\*천국준비물\*로는

1. 미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반가움의미소, 기쁨의 미소)
  2. 인사 (연합의 인사)
  3. 정답 (‘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 나의 의는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의의 열매는 우리의 몫이다(엡 5:9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 둘째날 (10/29) 토요일 새벽 “위로의 사람들” (딤후 1:16-18)

디모데후서는 사도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이다 (딤후 1:8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삶을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덕 가운데 최고의 덕이다.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에베소에서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으며 바울이 로마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격려와 위로를 해 준 하나님 일에 진정으로 동참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같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이다. 또한 바나바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았다.

특히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다툼과 미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화평한다. 서로 위로하며 세워준다.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들이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 행복에의 초대

Coming Home

# 아버지 마음으로 길에 서니

편집부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부둥켜안아  
맑게 씻기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며  
새 옷을 입혀 내보내셨습니다

철없이 기뻐 뛰는 모습마저도 보시기 좋아  
영원한 어린아이로 아픔 없이 살라시며  
당신의 몸을 십자가 형틀에 대신 내어 주시어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자로 무등 태워주셨습니다

잠깐 보내주신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갚을 길 없어  
떡먹한 가슴은 터지는 눈물로 받을 갈고  
세미한 아버지 음성 따라 말씀 듣고 길에 섰습니다

아버지 마음 듣고 세상 길 한복판에 나가서니  
아버지 앞의 나의 모습이 보이고  
아버지가 맡겨 주신 나의 가족이 보이고  
아버지가 손 내밀어 세우시려는 쓰러진 자가 보입니다

자식 잃은 아비의 바스라지는 고통으로  
집 떠나 길 헤메는 우리 형제를  
부디 찾아 집으로 함께 돌아와  
준비하신 많은 것을 누리라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먼저 베푸신 애끓는 사랑을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 형제의 손을 맞잡고  
어눌한 입술을 열어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받은 순결한 사랑에 감격하여  
비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스산함도  
웅덩이 고인 물에 젖은 발도  
아버지의 마중 나오시는 기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냉소로 버려지는 당신의 말씀을 허리 굽혀 집어 드니  
다독이며 세우시는 아버지 손길로 어깨는 따스하고  
목청 다한 아버지 마음과 온 몸으로 드린 찬양 소리는  
그 자리 보시며 지으시는 함박 미소로 축제가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하여  
보내심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행복에의 초대 Coming Home 1,2,3

이 날의 행사를 위해 2달 전부터 모여 회의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였다. 우연하게도 10년 전에 우리교회에서 같은 행사를 가져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있고 그 후에도 여러 번 가을 행사같이 치렀으나 언제부터인지 우리들의 열의는 식어 있었고 전도에 대한 갈급함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가을은 남달랐다. 어떠한 숫자에 대한 성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1. 나 자신을 점검하며 2. 내 가족들 3. 주변의 전도대상자, 넓게는 뉴욕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교회가 앞장서 복음 전도를 생활화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노방전도를 위해 조를 짜고 전도의 효율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기도하였다.  
누구에게 다가 갈 것인가부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며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헤어지는 방법까지 세부적인 교육과 점검을 하고 복음이 담긴 전도지와 선물 그리고 교회 안내지 까지 잘 챙겨 길로 나섰다.

누군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발달된 통신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구시대적인 수단으로 거룩해야 할 크리스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이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다. 거룩하셔야 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거리끼고 안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시대에도 거룩한 성전에서 긴 옷을 팔목에 감고 끌며 고상하게 율법을 논한 자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먼지나는 길에 앉아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지 않았는가? 주님을 생각하면 뜨거운 가슴에 코 끝이 아려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길로 나서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열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전 교인이 뉴욕의 길로 나섰다.

김성국 목사님이 길에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지나가는 한 분이 '저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자랑을 해야 사람들이 갈 것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교회로 다른 교회 교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전도가 아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막연하게 알던 기독교를 더 알기 원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을 택하시고 기다리시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우리가 행동하기만을 기다리셨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각 부서는 맡은 일을 며칠 전부터 준비하여 그날을 마치 주님이 오시는 날 같이 대비하였다. 제일 예쁜 옷을 입고 함박웃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자들을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쁨을 드렸다.

수백의 새가족과 장결자들이 믿음 안에서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행복의 초대는 계속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노방전도는 더욱 뜨겁게 이 겨울을 달굴 것이다.



#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회



지난 10월1일(토)에 다음세대를 위한 비전과 다 민족 선교를 위한 염원을 담은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회가 열렸다.

오전 8시에 개회를 위한 예배를 시작으로 각 남아 선교회와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러시아어 예배 회중과 각 교육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며칠 전부터 각 선교회는 모여 기도하며 분주하게 준비하며 이날을 계획하고 있었다.

일기예보는 그리 좋은 날이 아닐 것이라 했지만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한 대로 좋은 날씨와 함께 마음을 담은 헌신과 섬김으로 은혜로운 바자회가 저녁 7시의 폐회 예배를 드리기 까지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가을 바자회는 성전 건축 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가진 바자회이다.

우리 교회가 다민족선교를 지향하면서 시작된 중국어 예배는 설립 3주년 가까이 되면서 200여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지금은 시간대를 달리하여 영어 예배를 드리는 양순관에서 중국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공간의 정원을 초과하여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먼저 온 교인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다. 수요기도회로 모이는 기도실은 자리가 비좁아 둘러앉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러시아어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들 역시 주일에 모이는 자리마저도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옮겨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다민족 교인들이 밀물같이 들어온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이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사람의 계획을 뛰어 넘어 다민족 예배처를 위한 성



전을 만들도록 이끄시고 계신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갖고 모든 성도가 팔을 걷어붙였다. 기쁜 맘으로 주님의 일에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상품을 진열하고, 여벌로 갖고 있는 것을 내어 놓았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작품을 만들고, 받은 은혜를 감사로 돌려 드렸다. 진정한 나의 소유는 나눔으로 더 값어치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달으며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과 같은 기쁨을 함께 나눴다.

하나님 앞의 우리 계산은 백해무익한 것을 알지만 서로 만든 음식을 돈을 내고 나눠먹는 계산이 안 되는 하루였다. 주님의 계산 방법은 제로에서 무한대를 만드시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것과 어떠한 기쁨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것이다.

이날 바자회의 절정은 파킹장에서 이뤄진 깜짝 공연이었다. 늘 진솔하고 꾸밈없으신 담임목사님 내외분의 찬양과 날렵한(?) 춤사위는 옆에 함께 하던 청년들도 따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우리는 바자회에 있던 것이 아니고 천국의 장에 있었던 것이다. 찬양과 춤이 그리고 사랑과 순종이 누구의 강요도 없던 그곳에 넘쳐 흘렀다. 우리의 몸을 흠뻑 적시고도 넘치는 성령의 물결이 교회 지하실에, 파킹장에, 교회 구석구석에 충만하였다.

이날 모든 성도는 모금되어 쌓여진 기금보다 더 성숙된 믿음과 충만한 사랑으로 경총 올라선 날이었다. 성전 건축에 도움을 이루려고 모였는데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올려놓고 주님께 한 발 더 다가가는데 큰 도움을 받은 날이었다.



# 추수감사절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계화자 전도사

갈색, 빨강, 노랑, 초록색 나뭇잎들의 아름다운 조화...  
 과일들은 탐스럽게 익어가고...  
 뿌리는 굽게 영글어 가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감사의 달, 11월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힘들었던 우리의 이민 생활,  
 우리 퀸즈장로교회 42년 역사,  
 그리고 다민족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지금...  
 우리를 기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온갖 환란과 생사의 고비를 넘어  
 이 땅에 정착하여 첫 수확을 얻고,  
 그들을 생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과 이웃을 초대하여  
 사냥해온 칠면조 고기와 음식을 나누었던 청교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추수감사절 만찬에  
 여러분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날 짜: 11월 24일(목요일)  
 시 간: 오후 6시- 7시 / 만찬후 예배가 이어집니다  
 장 소: 지하 친교실, 체육관, 영어 예배부 친교실

올해도 퀸즈장로교회는  
 우리 교회로 오신 새가족과, 오랫동안 교회를 찾지 못 했던 교  
 우들, 유학생, 소외된 분, 집이 없어 노숙하는 분들, 장애인 선  
 교회, 이웃을 초청하여 온 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 감사하는 날  
 로 보내기 위해 풍성한 만찬을 준비합니다.  
 이 만찬을 위해 많은 교우님들이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물질과  
 과일 등을 donation 해주셨습니다.  
 남,여 전도회, 청년부 회원들이  
 가을 빛깔의 식탁에 아름다운 꽃을 꽂아 놓으며  
 1000여명의 식사를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가족되  
 어 이 땅에 청교도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께 감사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에 여러  
 분을 초대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  
 니다.  
 올해도 최고의 맛과 매너로 여러분을 귀  
 하게 모시겠습니다.



## 최우선인 하나님께 힘써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오인수 목사

2016년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성경  
 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  
 2) 맥추절 3) 수장절, 세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이 중  
 에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출 23:16) 맥추절을 지키며 이  
 스톱라엘 민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기억하  
 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  
 시 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  
 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도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도 12월 21일 미국 메사추세츠주 연안에 도착한 그들은 불모  
 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고생으로 여러 명이  
 죽기도 하고 인디언이 무서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습  
 니다. 얼마 후 인디언과 화친하였고 옥수수 심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1621년 가을에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어려  
 웠던 한 해를 이끄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예  
 배가 바로 최초의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이 날이 전통으로 이어졌고, 1789년에는 워싱턴 대통령이 11  
 월 26일을 감사절로 공포했으며, 여러 차례 의논을 거쳐 1941  
 년에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신  
 실하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힘써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도록 Help them to hear God's voice again

차평화 전도사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은 마치 흑암 속 혼돈처럼 여러 방향으로 흔들리며 홍수와 같이 범람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신 없는 상황임에도 그들은 여러 곳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손짓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듯 합니다. 이처럼 혼란한 시기는 곧 자신들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시간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중요할까요?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 독특한 교우관계와 친구들의 이해? 명시되는 학교 성적들? 하나님께 충실함?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측면은 정작 우리들이 가르쳐야 할 것과 다른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신앙의 유무에 상관 없는 시대 내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실함과 믿음의 감소가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청소년들은 기독교 신앙만을 은폐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기독교 정체성을 놓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사회의 목소리에 더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기도와 바람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으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감독관으로서 각자의 위치 내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현 사회가 우리의 응답과도 같은 기독교 세계관을 멀리 밀어내고 있다 보니 우리는 종종 성도 좌석에 우리의 아이들을 억지로 밀어 앉히고 성경을 강요하여 읽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설명 없이 행해질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여러 일들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더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청소년 아이들로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일 중에 하나인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그저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혜가 그들의 마음으로 전달 되지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삶 가운데 크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하시지만 아이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익숙하고 맙니다.

귀가 열려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예로써 교육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을 자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감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가르치려 한다면 아이들은 그저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과 즐거움이 없는 것도 혹은 좌절과 분노의 표출 조절도 하나의 문제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먼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들을 따르지 않을 것 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나이 많은 또래들을 따르며 그들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곤 하며 또래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감동이 없고 처음 사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헛된 전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려는 좋은 학생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말과 방향은 우리의 생활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활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찬 앰프와 같은 증폭기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좋은 예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은 우리 어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절대 떨어질 수 없으므로 현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그와 같이 아이들도 자랄 것 입니다.

이러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특권과 시간은 저에게 정말 귀하고 신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들이 모두 젊을 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는 십대에 불과한 청소년이었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한 열두살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윗 또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골리앗과 블레셋을 모두 물리쳤을 때는 다윗이 청소년일 시절이었습니다. 요시아,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한

모두 어린 시절부터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시들과 같이 이제 시간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 입니다. 비록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주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지만, 그저 혼욕하고 지시만을 통한 것이 아닌 좋은 삶의 증거와 예시가 먼저 되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길 기도하고 바랍니다.

In the pandemonium that floods the minds of our youth today, there are voices from every corner beckoning for their attention. And in this critical life stage, where they are solidifying the priorities of their hearts, this overflow, has our children's hearts divided. What is of utmost importance? The approval of parents? The affirmation of peers? School grades? Faithfulness to God? Various parts of society and culture teach something different. And in an era where to be non-religious is okay and to be religious is okay as well, while being a Christian is not, faithfulness to the Lord Jesus Christ appears to be diminishing. In order to avoid social suicide, our children are not only concealing their Christian faith, but have begun straying from their Christian identity. As they listen to the voices of society, the voice of God is muffled.

Our prayer and hope is that our children would be able to hear the voice of God once again. Our role is first to pray for our children and second is to set an example. As we see society pushing away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our response, as parents, overseers, and the church, is sometimes to try and counter by shoving our children into the pews and plastering the Bible to their faces. However, when done without explanation, our children are physically in the church and doing the Christian things, but their hearts wander further, as these things become just another thing they have to do. God is speaking loudly in their lives and they are drowning out his voice. It is not that they do not know the Bible or Biblical principles, rather their knowledge of these things are not translating to their hearts. Their ears are opened, but their hearts that are closed. Therefore, we cannot force them to hear the voice of God by making them do things. Rather it requires instruction and care by way of example. If we teach our children the importance of being a



Christian, while living a life that is not above reproach, our children will only draw further from Christ. Whether it is a lack of joy and contentment or a lack of self-control in anger, frustration and the like, if we are not living as faithful Christians, our children will not follow. Our youth must be able to look up to the olde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church and desire to be like them, and to draw closer to Christ through their example. Our role is to teach and instruct; however, our efforts are futile if the Gospel is not hitting our hearts and changing the way we live first. To be a good teacher is to be a good student first, and to be a good leader is to be a good follower first. Our words and direction must not be contradictory to our lifestyle. Rather, our lives must be filled with God's voice like an amplifier so our children can hear Him calling through our example.

This is an exciting time for me, as I have the privilege of working with these youth students in this stage of their lives. God in Scripture called many of His leaders at a young age. Joseph was sold as a slave to Egypt when he was in his teens. Samuel was called by God at the age of twelve. King David was called to represent Israel against Goliath and the Philistines as a young lad. Josiah, Jeremiah, and Daniel and his friends were also first called at a very young age. As we see these examples, the time is now for our children. The Lord is calling them to a new life and as leaders of His church. Though many of them do not hear Him calling, my prayer and hope is that we would be able to teach them God's word and help them to hear God's voice, not only through our preaching and teaching but through our lifestyle as well.





# 2016 QPEM Fall Retreat

By QPEM Staff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slave nor free, there is no male and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Galatians 3:28)

The theme of this year’s QPEM Fall Retreat was “Shape Up: The Gospel Shapes Us as a Church and Community.” Our guest speaker was Reverend Dr. Paul Kim from Pacific Crossroads Church in Los Angeles. Prior to that, Rev. Kim served 15 years as the EM Pastor at Immanuel Presbyterian Church before serving as the Senior Pastor at Renewal Presbyterian Church in Philadelphia. Rev. Kim preached a sermon series on how the Gospel transforms the church and specifically in how the Gospel changes the way we relate to one another. This was the perfect message that our QPEM family needed to hear, especially as we are electing our very first QPEM Elders and also launching our new 18 Small Groups throughout the ministry!

Rev. Kim preached from Galatians and showed that the

Gospel changes how we view one another in our relationships, not from our lens but from God’s lens. Rev. Kim challenged us to think of the ways we assign value to “categories” in our lives. For instance, he asked us what categories we assign people into (ie. successful, athletic, moral, tolerant, wealthy, young and old, etc). These categories reveal what we see as significant in life. Rev. Kim taught that in Galatians, the Apostle Paul made it clear that there is no position or title that makes anyone any more significant or influential, at least not in God’s eyes! For our God shows no partiality!

“And from those who seemed to be influential (what they were makes no difference to me; God shows no partiality)-those, I say, who seemed influential added nothing to me”. (Galatians 2:6)

Paul did not see the Apostles Peter, John and James as any more noteworthy or significant than anyone else, for in Christ, we are all sinners in need of grace. The Gospel of Je-



sus Christ truly changes how we see one another!

The retreat brought the QPEM family together in worship, fellowship and prayer. The small group discussion times fostered genuine discussions and Spirit-filled sharing. We were given a time to pray and confess our sins to one another, lovingly confronting each other in times of reconciliation and healing. We learned what it means to “preach the Gospel to one another” and “help each other see our need for Jesus”. Through these prayer times, we helped each other see Jesus!

As QPEM, we are reminded of our unique calling to be a missional church. A church that will reach out to all the English-speaking people in our community. We are also praying to reach out to the 2nd Generation Korean and Asian-Americans who have left the church. We pray that as we continue to grow and mature as a congregation, God will indeed shape us through the Gospel as a Church and Community!



# 感谢赞美神,愿荣耀归于父神

何秀萍 Shirley

感谢天父带领我来到韩中长老教会·我记的在去年的3月15号那天·当我第一次听到陈传道传讲神的话语时·圣灵就已在里面做工·我的眼泪就像沙漠里的江河一样滔滔不绝·我感觉到我里面那沉睡的圣灵又重新有了生命的气息·我终于明白了何为一个重生得救的基督徒该有的心态·就像约翰福音16:8说:祂既来了·就要叫世人为罪·为义·为审判·自己责备自己·是的回想我以前不懂真理·不认识耶和华中·我也是天天被玛门诱惑·成了罪的奴仆·无法自拔·我的人生都是以自我为中心·总觉的身边的人有很多问题·而我是唯一的受害者·这种自私自利的态度使得我天天得罪神·得罪人·没有什么好的见证来领人归主·我甚至还理直气壮的把传福音的责任直接推给牧师·觉得自己太忙·怕自己是瞎子领瞎子·种种理由使我把生活中好多传福音的机会给忽略弃绝掉了·通过一年多的周二查经班·使我的灵命长进了好多·感谢神的话·耶和华中的话语真是我脚前的灯又是我路上的光·陈传道借着周二查经把一个真正重生得救的基督徒们该有的圣洁生活教导我们遵行·有一天我们查到哥林多前书第九章16-22保罗的教导说“我传福音的确没什么可夸的·因为我是不得以的:若不传福音·我便有祸了;我若甘心做这事·就有赏赐·若不甘心·责任却已经托付我了。”同样类似的经文在以

西结书中也出现过·以西结3:17-19“人子啊·我立你作以色列家守望的人·所以你要听我口中的話·替我警戒他们·我何時指着惡人:他必要死;你若不警戒他·也不劝戒他·使他离开惡行·拯救他的性命·這惡人必死在罪孽之中;我却要向你討他喪命的罪(原文是血)·倘若你警戒惡人·他仍不转离罪惡·也不离开惡行·他必死在罪孽之中·你却救自己离开了罪。。。“那天的查经使我非常的羞愧·整个晚上的查经让我心惊胆战·神的话就像两刃的刀刺透我的心·让我觉得扎心·耶和华中的话光照我要即时从这污秽的生活中再次的回转归向神·没有传道的·哪有听道的呢?若不是我的舅舅在十几年前给我传福音·我又如何能得救呢?感谢神的怜悯·使我不至于在无知中死去·不久之后我就接受门徒培训·门训的课程里有一本必读书叫《标杆人生》;我被这本书里面的内容深深的打动·这个例证是关于作者pastor Rick Warren他的父亲在他临终前还不忘为主多救几个灵魂的故事·这个例证引起了我的反思·是的·同样都是神用宝血所买赎的儿女·而我确如此的亏欠·我明知道父的心意乃是愿万人得救·不愿一人沉沦·但是我确并不以福音为荣·不随从圣灵的感动·反而屡次体贴肉体的私欲·不理睬做父亲的心·我开始慢慢跟着神的步伐来活出我人生该有的目的·我开始效法pastor Warren和门徒培训书中的作者那样借助不住的祷告来祈求神预备环境来装备自己·通过学习神的话·知道末世已经近了·带着紧迫感来祈求神使用我这有限的时间来多多的参与福音事工·神真是那听祷告的神·有几次我都清楚感觉到神用我这不完全的人来一起配搭做成祂的工·记得去年冬天的一个清晨·我被车撞倒在马路上·看似非常糟糕的一天·但是神确有祂的美意·顿时感觉神的奇妙·是的神叫万事互相效力·叫爱神的人的益处·就在那天·我有幸的对一个佛教徒传了福音·

被撞之后·我没怪那个撞车的人·没报警·没有要求任何赔偿·反而安慰那人可以安心去上班·这为撞车的吴先生对我的反常行为表示感谢·也感恩上帝·从那以后这位朋友就一直与我保持联系·就在上个礼拜五·这位吴先生也主动请求来韩中长老教会参加中秋节的聚会·感谢神借着陈传道的口又给这个吴慕道友剥了一层洋葱·现在传福音真正成了我生命一个很重要的部分·在我日常生活中·我真的可以做到把福音生活化·我学会特意用不同的话题来引导福音的讲述·简单举例·去年我因买旗袍来参加教会新年庆典·而有幸认识这旗袍店的老板·然后介绍她来我们的教会·这位姐妹现已经是我们的稳定会友·我通过传福音开始去了解人的需要·学会用属灵的眼光看问题·主动与人建立关系·这种的改变·不是我自己可以做到的·我有时候也为神在我身上的改变感到不可

思议·因我本是一个很内向·不会跟人打交道的人·记得我以前参加其他教会的主日崇拜时·我基本上都选择靠近出口的位子坐·以便离开时方便避免与其他信徒有任何的交际·感谢神的怜悯·因着不断地认识基督·我开始克服我的惧怕·我不再惧怕时间和精力与人建立关系·因我知道上帝把永恒放在人的心里·这个永恒就是神自己·就是爱·爱是需要负代价的·就如耶和华中爱我们·附上生命的代价来买赎我们·我也特别感谢神赐给我一颗刚强壮胆的心·当我愿意传福音那天开始·我已不畏惧在世人面前为上帝做见证·我可以靠着基督倘然无惧的去街头布道·现在我对路人的坏脾气·或是他们会瞪眼睛·甚至因为躲避福音单张而绕道走的路人已不在让我心灵受伤·因神把爱人的心给了我·我开始看到那些愁眉不展的罪人·他们需要神的福音·我也明白只要我愿意·上帝可以用我这个不完全的人来奉献五饼二鱼去喂饱五千人·只要我相信祂的大能·我坚信只要我挪开坟墓的门·神就可以使这些灵里死去的人复活·只要我按照神的吩咐把水缸的水倒满·神就

# 将荣耀都归给我们在天上的父

Candy Zheng

感谢主!这是我第二次真正参与到教会义卖服侍中·真的非常感恩·在义卖当天·即使天气不好·我们建堂义卖也有了不错的成绩·回想筹备之初·自己的内心当中有许多的挂虑和担心·生怕最终的结果达不到我们所预期的·然而我们的神是看顾的神·是信实的神·正如主耶稣告诉我们·“有人靠车·有人靠马·但我们要提到耶和华中我们神的名。”诗 20:7·凭借着弟兄姐妹们的不住祷告与向神的呼求·我们义卖当天一切的活动都进行的非常顺利·糟糕的天气丝毫没有减弱我们的热忱·弟兄姐妹们反而是尽最大的努力参与其中·透过这次建堂义卖活动·让我感受最深的就是在主耶稣基督里·所有的弟兄姐妹们都甘心乐意的摆上·并且没有丝毫的怨言·这样大型的义卖活动需要我们花时间去筹备·对于大多数的弟兄姐妹们而言·他们所能空出来的唯一时间就是工作之后·身体的疲惫丝毫没有使我们对义卖筹备有丝毫的懈怠·反而是更加全身心的投入其中·很感谢主透过各样的教会活动使我参与其中·为神的国度的扩张献上一己之力·将荣耀都归给我们在天上的父!

이번에 감사하게도 저는 두번째로 교회에서 바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할 것은, 바자회 당일날 날씨가 흐렸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바자회에서 괜찮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는 적지않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시 20:7)” 모든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그날 바자회에 모든 순서와 행사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굳은 날씨도 우리의 열정을 조금도 꺾을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형제 자매들은 더욱 최선을 다해서 맡은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번 건축바자회를 통해서 제가 가장 깊이 느낀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도 원망섞인 말들을 하지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규모의 바자회를 준비하는데에는 우리의 시간적인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드릴수 있는 시간은 오직 일을 마친 후의 저녁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피곤함은 전혀 우리의 바자회 준비를 지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교회활동을 통해서 저를 그 가운데 참석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조그마한 힘을 보탬 수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Shirley

# 마음에 기적이 일어난 바자회

송요한 목사

이번 실시한 건축 바자회에 러시아어예배가 처음 정식으로 참여했습니다. 봄 선교 바자회 때에도 참석은 했지만, 이번에는 모두 연합하여 참석 하게 된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정말 우리 예배부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 좋은 경험을 한 날이었습니다.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러시아어 예배부 성도들에게 이번에 실시하는 바자회의 동기를 설명하였습니다. 바자회를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은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되며, 지어지는 새 성전에서 많은 민족들과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예배부를 위해 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리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의견을 내며 의논했으나 결국은 이번에도 사설릭(Shashlik)으로 하자고 결정을 갖고 준비하는 재료도 봄 보다 약 두 배로 정하고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모여 섬기도록 했습니다.

막상 결정하고 나니 양고기로 만드는 사설릭이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까 고민도 되었지만 맛있는 사설릭 준비를 위해 전 날인 금요일 밤에 모였습니다. 정말 양고기가 맛있게 되려면, 전날 밤에 꼭 양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직장 후에 피곤한 몸이지만 같이 모여서 러시아 전통의 양념으로 정성껏 준비 했습니다.

다음날 바자회 아침에 일찍 나와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판매 할 준비를 하면서도 과연 많이 팔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조금이라도 교회의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준비한 모든 고기는 오후 세시가 되니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팔고 정리를 하면서 우리 러시아어 형제자매님들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모두 기뻐하면서 바자회를 통해 한국, 미국, 중국 회중이 하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옆에 있는 여러 부서에 형제자매님들의 웃음과 기뻐하는 모습에 위로를 받으며 우

리 모두 한 가족이라고 느끼게 되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잘 팔린 고기보다 성도의 마음에 기적을 일어났습니다.

한 큰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과 한 목표를 바라보는 한 팀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 서로 배려를 하고, 도와주고 같은 일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 다른 인종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 때 전날 바자회의 수익에 대하여 알려드리면서 많은 결과에 우리의 작은 도움도 더하여 집에 모두 기뻐하면서 환호하였습니다. 시 126:6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고 하였습니다. 바자를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힘을 드리는 것은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이 힘든 일 후에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지금 새 성전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 새 성전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 예쁜 모습으로 교회를 더욱 환하게

행복의 초대 행사를 통하여 러시아어 예배에 7명의 새가족이 늘었다. 현재 50명 정도 모이는 성도에 기준하면 놀라운 일이다. 이제는 러시아어 번역 자막이 익숙해지고 동유럽 특유의 예쁜 모습들이 교회를 환하게 하고 있다.

행복의 초대가 있던 저녁 예배에 러시아어 예배부에서 연극을 가졌다. ‘진실한 사랑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는 것으로 다양한

표정과 재미있는 표현들 가운데 감동을 주는 내용이었다. 이제는 러시아어예배의 성도가 경배와 찬양팀에도 함께 어울려 봉사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다민족교회의 성도답게 하나님 안에서 형제 뒀을 더욱 깊이 느껴가고 있다. 연극으로 참여한 오늘 행사와 같이 함께 공감하며 어우러져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한다.



주후 2016년 10월 23일  
행복예의 초대



## 권장 경배와 찬양팀을 소개합니다

심인보 집사 (경배와 찬양팀 단장)

퀸즈장로교회 경배와 찬양팀을 소개할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립니다.

퀸즈장로교회 경배와 찬양팀은 찬양위원회 소속으로 위원장에 김수산 장로님, 부위원장에 이광운 집사님, 디렉터에 윤원상 전도사님, 그리고 단장에 심인보 집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퀸즈장로교회 경배와 찬양팀은 모두 세 팀으로 가브리엘경찬팀(기혼한 중장년들)과 마하나임경찬팀(청년들), 벨엘경찬팀(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경찬팀은 지도자로 배인구 전도사님을 모시고 주일 2부예배를, 마하나임경찬팀은 지도자로 오인수 목사님을 모시고 4부예배를, 벨엘경찬팀은 지도자로 배형민 목사님을 모시고 수요일예배를, 그리고 바디워십팀은 주일 2부와 4부, 총동원 새벽기도에는 연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각 팀은 악기팀 보컬킴 바디워십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퀸즈장로교회 경배와 찬양팀은 각 팀별 연습과 총연습을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며 주일예배 1시간 전에 또한번의 연습과 리허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 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자라는 교회와 담임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따라 항상 모여 이를 위

해 열심히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퀸즈장로교회 경배와 찬양팀은 무엇보다도 일년의 시작인 제직수련회를 시작으로 춘추계부흥회, 사순절 새벽기도, 전교인 여름가족수련회, 가을특별새벽기도, 부활절, 성탄절 칸타타, 선교회헌신예배 등 연간 모든 예배와 행사에 적극 헌신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사님의 설교본문에 부합한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각 팀의 지도자들이 기도를 통해 선곡을 하고 있으며 담임목사님의 특별한 말씀에 또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 성도님들께 은혜의 찬양을 끼칠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 경배와 찬양팀에 조인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김수산 장로님이나 심인보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퀸즈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온 몸으로 주를 찬양

조지영 집사 (경배와 찬양팀 바디워십팀 리더)

11년 전 청년부이었을 때 그저 찬양을 하는 것이 좋았던 저는 몸으로 찬양을 드린다면 더욱 기쁘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처음 바디워십 팀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나의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지만 십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듬어 주시어 오직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기뻐 받으실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저를 변화시켜주셨습니다.

바디워십은 단순히 유행이 아니며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기도인 동시에 예배입니다. 말씀에서도 보여 주듯이 몸으로 드리는 찬양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유행처럼 생겨난 교회에 많은 바디워십팀들은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절기 때에만 이벤트 형식으로 사용하거나 무용 전공자들이 팀을 이루어 교회에서 분리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워십은 단순히 찬양을 돋보이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드리는 자도 보는 자도 함께 하나님께 드러지는 찬양 그 자체입니다. 입술로만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주님께서 지으신 온몸으로 노래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몸으로 찬양을 한다면 모든 민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바디 랭귀지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몸으로 하는 찬양은 인종을 초월하여 파워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디워십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

족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춤추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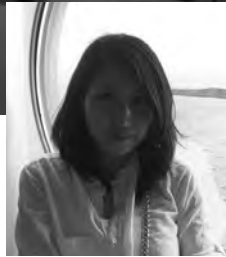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단순한 발목 부상으로 여졌던 것이 지금까지도 완쾌되지 않아 춤을 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내가 맘을 흘려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 드렸다고 생각한 움직임도 주님의 허락하심에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알게 되니 이제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바디워십팀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은 형제와 같이 가정사의 고민과 자녀의 문제도 서로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오직 저희 팀의 소망은 저희들이 몸으로 드리는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성도 모두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더욱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받는 상처들, 어려움들까지도 치유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셔서 바디워십을 단지 퍼포먼스가 아닌 예배의 한 부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온전히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찬양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찬양을 통한 은혜와 기쁨으로...



이민진 교우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는 3개월 밖에 안 되었지만 오랫동안 찬양팀에서 봉사한 탓에 이번 30대 선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찬양에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풀타임으로 일하느라 주중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일 예배시간은 나머지 6일의 삶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머지 6일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면 최선을 다해서 저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을 하며 주님께만 집중할 때 제 마음과 생각이 예배에 나오기 전과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둡고 두려운 마음이 밝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고,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기쁘고 충만한 은혜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나머지 6일을 직장과 가정에서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주일 날 찬양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에 갈급했는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을 준비할 때 떠올랐던 찬송가가 있었는데요, “주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기쁨이 풍성히 넘칠 때 저를 둘러싼 어려움과 환경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믿는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역사하셨듯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